

지방중소기업 활력화를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223

제안년월일 : '93. 4. 12

제안자 : 산업위원장

1. 주 문

-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 차원에서 경부고속전철공사의 본도 지역내 공사시행 구간에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 납품 절실

2. 제안이유

- 본도에는 75개소의 레미콘회사가 있으나 정상가동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공사 시행에 일부 대기업체에서 전담 시공하고 있음
-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본도 지역내 구간에서 소요되는 레미콘을 지방중소기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3. 참고사항

" 없 음 "

地方中小企業活力化를爲한建議文(案)

商工資源部 長官

交 通 部 長官

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 理事長 께

新韓國의 出帆과 함께 沈滯된 經濟를 回生시키는 일은 當面한 國家의 政策課題라고 生覺합니다.

항상 中小企業의 育成 等 經濟 成長을 爲하여 온갖 努力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드리며,

當面한 地方 中小企業의 育成 問題에 대하여 建議드리고자 합니다.

本 道內에는 75個所의 레미콘 工場이 있으나 正常 稼動에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運營 閉鎖에 直面한 此際에 있습니다.

今番 政府에서 大單位 國家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 京釜高速電鐵工事의 施行에 있어서는 大企業인 한신공영(株), 韓國重工業 만이 專擔 施工함에 따라 中小 企業體에서도 參與

할 수 있는 레미콘 分野까지 包含 함으로서 現實적으로 어려운 地方 中小企業의 育成 發展 次元에서 볼때 地方化 自治制 育成 發展에 明白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生覺됩니다.

지난 2月 19日 本道에서 開催한 中小企業 事業調整審議會에서도 諸般條件이 大企業 製品과 差異가 없다면 地方의 中小企業 參與는 반드시 反映되어야 할 것이라고 論議한 바도 있습니다.

建議하건데,

本道 地域内 工事施行에 所要되는 레미콘은 中小企業 活性化의 時急性和 地域經濟의 重要性을 諒察하시와 地域内 中小企業 製品을 必히 使用 (納品)할 수 있도록 特別히 措置하여 주실것을 抑願하는 바입니다.

1993. 4. 17

忠清北道議會議員 一同